

# 한국어 합성 동사성 명사의 어휘구조와 다중 동사성명사 구문

류병래

충남대학교

ryu@cnu.ac.kr

##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다중 동사성 명사 구문’ (Multiple Verbal Noun Constructions)의 논항실현 양상을 이론 중립적으로 고찰해 보고, 이 분석을 제약기반 문법 이론인 최근의 핵심어주도 구구조문법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를 안에서, 특히 다중계승위계를 가정하는 제약기반 어휘부를 기반으로 형식화해 논항의 실현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우선 일본어의 유사한 현상을 분석한 Grimshaw & Mester (1988)의 격실현 양상에 관한 일반화를 기반으로 한국어 동사성명사구문의 논항실현 양상을 ‘논항전이’ (argument transfer)라는 이론적 장치를 이용해 형식화할 수 있음을 보이고, 동사성 합성명사의 논항구조를 만들기 위해 ‘논항합성’ (argument composition)이라는 이론적 장치를 제안한다. 나아가서 다중 동사성 명사구문의 논항실현 과정에서 보이는 겹적표지 현상을 ‘격 복사’ (case copying)를 제안해 동사성 명사의 격표지가 합성명사에서 분리되어 문장단위에서 실현될 때 동일한 격을 복사해 실현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동과 능동 등 문법기능의 변화현상에서 하위범주화된 요소들의 격변화가 자의적이 아님을 실례를 들어 보여 주고자 한다.

일본어의 경동사 (light verbs)에 관한 분석인 Grimshaw & Mester (1988) 이래 한국어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문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Ryu (1993b), 채희락 (1996), Chae (1997) 등 참조). 한국어에서 ‘하다’와 동사성명사 (verbal nouns)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동사성명사구문’ (Verbal Noun Constructions)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대부분 하나의 동사성 명사가 ‘하다’나 ‘되다’ 등 소위 문법기능을 바꾸는 ‘경동사’들과 결합하여 복합술어가 되는 문법적 현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와 비교해서 동사성 명사의 어근이 두 개 이상 결합하여 동사성명사들끼리 합성명사(compound nouns)를 이루고 그 동사성 합성명사가 문법기능의 변화를 바꾸는 ‘경동사’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술어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특히 이 지적은 핵심어주도 구구조문법을 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본 논문의 대상은 바로 이러한 합성 동사성명사의 논항구조와 동사성명사에 의해 하위범주화된 논항들의 문법적 실현양상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1)과 같은 ‘다중 동사성 명사 구문’ (Multiple Verbal Noun Constructions)의 논항실현 양상을 이론 중립적으로 고찰해 보고, 이 분석을 제약 기반 문법이론인 최근의 핵심어주도 구구조문법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를 안에서, 특히 다중계승위계를 가정하는 제약기반 어휘부를 기반으로 형식화해 논항의 실현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 (1) a. 정부가 양담배의 수입을 금지를 해제를 하였다.  
b. 양담배가 (정부에 의해) 수입이 금지가 해제가 되었다.

우선 하나의 동사성 명사가 경동사인 ‘하다’나 ‘되다’와 결합하여 일종의 복합술어를 형성할 때, 동사성 명사가 하위범주화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문장구조에서 실현되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일반화를 피하고 그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약기반 어휘부이론의 틀 안에서 제안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두 개 이상의 동사성 명사가 하나의 경술어와 결합하는 경우, 동사성 명사에 의해 하위범주화된 요소들이 어떻게 복합술어 전체의 하위범주화 특성과 연동하는지를 분석한다. 즉, 동사성 합성명사(compound verbal nouns)에 의해 하위범주화된 논항들이 명사구와 문장 층위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기본적인 논지로 주장하고 있다.

첫째, 한국어의 동사성 명사구문은 동사성 명사와 경술어가 결합해 복합술어를 형성하는 구문이고, 이 때 동사성 명사에 의해 하위범주화된 요소들이 명사구 내부에 실현될 수도 있고, 동사성 명사의 하위범주화 틀이 일부 혹은 전부 경술어의 하위범주화 틀로 전이되어 명사구 밖 문장 층위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명사구내에서 실현되는 요소들은 실현되는 순서에 강한 제약이 있고, 그 제약은 ‘사격성 위계’의 순서와 같다. 이러한 Grimshaw & Mester (1988)의 관찰과 유사한 논항실현 양상을 ‘논항전이’ (argument transfer)라는 이론적 장치를 이용해 형식화할 수 있다.

둘째, 복합술어가 두 개 이상 연속으로 등장하는 경우 각각의 하위범주화 틀이 합성되어야 하는데, 이 합성의 원리는 단순한 합성이 아닌 합성명사의 핵심어가 함수가 되는 핵심어-보충어 관계를 이루는데, 이 관계를 ‘논항합성’ (argument composition)이라는 이론적 장치로 형식화해 제안한다. 위에서 제안한 논항전이와 논항합성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쓰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도 역시 제시할 것이다.

셋째, 동사성 명사가 명사이면서 동사와 같은 혹은 유사한 하위범주화 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술하기 위해 ‘다중계승 불명기 유형위계’ (multiple default inheritance type hierarchy)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이 위계를 이용해 명사이면서 동시에 비어 있지 않은 고유의 논항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사성 명사의 문법적 특성을 잘 포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넷째, 다중 동사성 명사구문의 논항실현 과정에서 보이는 겹적표지는 한국어에 특이하게 존재하는 ‘격복사’ (case copying)라는 장치에 의해 분석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동과 능동에서의 하위범주화된 요소들의 격변화가 자의적이 아님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어지는 제2절에서는 다중 동사성명사 구문에 속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다. 제3절에

서는 본 논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문법형식체계인 핵심어주도구조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이하 HPSG)의 어휘부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다중 동사성명사구문을 잘 기술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이 절에서 우리는 ‘논항전이’(argument transfer)와 ‘논항합성’(argument composition)이 서로 구분되는 문법적 장치로 제안하고 그 구분방법을 제시하고 두 문법적 장치의 역할을 실제 예를 통해서 예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분석법이 지니는 설명력과 기존 논의와의 비교를 통해 제안된 분석법이 이론적인 경험적인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 참고문헌

- 노용균 (1997) 한국어 동사와 명사 사이의 하위범주화에 있어서의 평행성, *언어와 정보* 1, pp. 27-65.
- 채희락 (1996) “하-”의 특성과 경술어 구문, *어학연구* 32, pp. 409-476.
- Chae, Hee-Rhak (1997) Verbal Nouns and Light Verb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33, pp. 581-600.
- Chomsky, Noam (1970) *Aspekte der Syntax-Theorie*, Frankfurt am Main [deutsche Ausgabe von Chomsky (1965), übers. von Ewald Lang]: Suhrkamp.
- Gerdemann, Dale (1994) Complement Inheritance as Subcategorization Inheritance, in John Nerbonne, Klaus Netter, and Carl Pollard (eds.), *German i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no. 46 in CSLI Lecture Notes, Stanford University: CSLI Publications, pp. 341-363.
- Grimshaw, Jane and Armin Mester (1988) Light Verbs and  $\theta$ -Marking, *Linguistic Inquiry* 19, pp. 205-232.
- Hinrichs, Erhard W. and Tsuneko Nakazawa (1989) Subcategorization and VP Structure in German, vortragspapier auf dem ‘Symposium on Germanic Linguistics’ (Abgedruckt in Hinrichs & Nakazawa (1993)).
- Malouf, Rob (1997) *Mixed Categories in the Hierarchical Lexicon*, Ph.D. thesis, Stanford University.
- Ryu, Byong-Rae (1993a) Delimiter und Dualität im Koreanischen, Arbeitspapiere des Sonderforschungsbereichs 282 “Theorie des Lexikons” 34, Seminar für Sprachwissenschaft, Universität Wuppertal.
- Ryu, Byong-Rae (1993b) Structure Sharing and Argument Transfer: An HPSG Approach to Verbal Noun Constructions, Sfs-Report 04-93, Seminar für Sprachwissenschaft, Universität Tübingen.

---

Sag, Ivan A. and Tom Wasow (1999) *Syntactic Theory - A Formal Introduction*, CSLI  
Publication, Stanford.